

단군왕검

아주 먼 옛날, 하늘 나라를 다스리며 세상의 모든 일을 돌봐 주는 환인이라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환인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 환웅은 하늘 아래의 세상에 유달리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환웅은 아버지 환인에게 여쭙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아래 세상에는 무엇이 살고 있습니까?"

"그 곳에는 땅이 있어서 땅 위에 많은 것들이 살고 있지. 나무와 풀, 온갖 짐승들과 새, 그리고 물고기들도 있단다."

"그럼 그 곳은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그 곳에는 왕이 없단다. 힘이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가 하면, 움직일 줄 아는 놈이 움직일 줄 모르는 놈을 잡아먹기도 한단다. 특히 땅에는 꾀가 많은 인간들이 있어 땅 위의 모든 것은 이 꾀 많은 인간들에게 꿈쩍을 못 한단다. 하지만 인간들은 아직 자연과 곡식을 슬기롭게 이용할 줄 몰라서 어렵게 살고 있지."

이 말을 듣고 환웅은 생각했습니다.

'아아, 인간들이 하늘님이 주신 지혜를 깨우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고 있구나. 내가 저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 환웅은 인간 세상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환웅은 아버지 환인에게 자기가 품고 있던 속마음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환인은 아들의 생각이 그토록 간절한 것을 알고, 환웅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비의 신, 구름의 신, 바람의 신을 데려가도록 허락했습니다.

환웅이 태백산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널리 이로움을 베풀어 사람들은 살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동굴에서 같이 살고 있던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환웅님, 우리도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 되는 게 그토록 소원이라면, 그렇게 해 줄 수 있지. 그러나 꼭 내가 시키는대로 해야 하느니라. 사람에게는 슬기 못지않게 어렵고 힘든 일을 곳곳하게 참고 이겨 내는 참을성과 끈기가 필요하니까, 알겠느냐?"

"예, 환웅님. 사람으로 될 수만 있다면 어떤 힘든 일도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러니 꼭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라며 호랑이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환웅은 곰에게도 다시 물었습니다. 곰도 역시 환웅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썩 한 다발과 마늘 스무 쪽을 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 썩과 마늘을 줄 테니 백일 동안 이것만 먹으면서 햇빛도 보지 말고 굴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들 소원을 이룰 수 있느니라."

그 날부터 곰과 호랑이는 마늘과 썩만 먹으며 동굴 속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미가 급한 호랑이는 며칠이 지나자 배고픔과 답답함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곰은 모든 고통을 꼭 참고 백 일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백 일 동안 썩과 마늘만 먹으면서 고통을 이겨 낸 곰은 마침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곰이 변해서 된 이 여인을 웅녀라 불렀습니다.

웅녀는 환웅을 찾아가 사람으로 되게 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한 가지 소원을 더 말했습니다.

"환웅님, 혼자서 살아가려니 너무 외롭고 쓸쓸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배필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웅녀가 날마다 찾아와 정성을 다해 빌자, 환웅은 건강하고 늙름한 청년으로 모습을 바꾸고 웅녀 앞에 나타나서 웅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웅녀는 건강하고 잘생긴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슬기롭고 용감하게 자라서 환웅의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곧 우리나라의 시조인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 왕검은 평양성에다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습니다. 나중에 도읍을 백안산 아사달로 옮기고 1천 5백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단군 왕검이 다스린 조선은 언제나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